

한우 자조금

www.hanwooboard.or.kr

2013년 12월호

기획특집

아듀! 2013 한우산업 결산

현장르포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샘터농장을 가다

이슈 1

농식품부, 한우산업발전대책 내용과 과제

이슈 2

한·호주 FTA 협상 타결...TPP 가입 가시화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CONTENTS

한우자조금 2013. 12



기획특집 03-05

아듀! 2013 한우산업 결산

포커스 06-07

한우 마블링의 오해와 진실

이슈 1 08-09

농식품부, 한우산업발전대책 내용과 과제

현장르포 10-11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샘터농장을 가다

이슈 2 12-13

한·호주 FTA 협상 타결...TPP 가입 가시화

Information 14-17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KREI 축산관측 18-19

12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송년회 건배사 & 꿀꿀견

Bravo! Life 22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Information&애독자코너 23

한우자조금

등록번호 114-82-61108

비매품 제9권 통권 제98호 발행일 2013년 12월 5일 발행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60 커피이화관 3층 기획총무부 Tel : 02-522-4292~3 Fax : 02-522-3605
2층 홍보마케팅부 교육조사부 Tel : 02-522-3607~8 Fax : 02-522-4314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_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Tel : 02-525-1053 Fax : 02-525-1054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전재할 수 없습니다.

곤두박질치는 소 값...사육농가 어려웠던 한해 추석이후 회복세 유지, 반등기회 삼아야

FTA로 위기감 고조,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진행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치던 소값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힘겹게 시작된 2013년. 소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가 진행됐음에도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높은 사료 가격 등으로 농가는 부채만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육농가의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졌으며 국회까지 나서서 한우 소비확대를 위한 행사에 동참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 FTA협상 추진이 탄력을 받으며 농가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한우농가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농협 음성공판장을 점거해 한우가격 지지와 사료가격 인하를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한우가격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을 이끌어냈었다.

추석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한우 소비촉진 행사에 힘입어 한우가격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료가격은 높고, 농가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우농가에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FTA피해보전직 불제가 농가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협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피해보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사다난이란 말도 부족할 지경이었던 올 한해 한우산업을 정리해본다.



농가수 줄고 가격 곤두박질...불안한 출발

2013년 한우산업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전망을 통해 한우가격 회복시기를 2015년으로 예상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가임암소수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한우농가수는 14만1,000농가로 전년대비 2만여 농가가 감소하였으며 올해 9월 통계로는 12만2,000호까지 감소했다. 대목인 설에도 한우가격은 크게 회복되지 않으면서 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집행부 재구성, 새로운 변화 도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강성기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며 그동안의 실적과 역량을 인정받았다. 전국한우협회는 이강우 회장을 제7대 중앙회장에 추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했다.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선정

높은 사료가격과 낮은 출하가격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농식품부는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에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한우농가의 기대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 논의 등 축산환경에 관한 규제까지 강화돼 농가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우 1등급 출하해도 70만원 손해

8월까지 한우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부산물 소비부진에 따른 유통업체 부담까지 가중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경연에서도 축산관측을 통해 한우 1등급을 출하해도 농가는 마리당 70만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등 한우가격이 경영비수준에도 못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4,000여 한우농가 경영안정 성토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각종 할인행사와 소비촉진 행사가 이어졌지만 한우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결국 4,000여 한우농가가 거리로 뛰쳐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에서의 삭발과 단식투쟁, 농협 음성공판장 점거 등을 통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전국민에 알렸으며 농식품부, 농협으로부터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다.





한우인의 날 및 한우협회 창립기념식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우인의 날 및 전국한우협회 14주년 창립 기념식은 한우농가 자긍심 고취와 한우산업 회생을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9월 9~11일 울산 태화강둔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한우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축산인들이 바람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FTA피해보전 수입기여도 제외해야

다행스럽게도 한우가격은 추석이후 다소나마 회복세를 보였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기준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 반영은 위법적 발상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또한 한우협회는 지난달 21일 'FTA피해보전 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하며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물 소비활성화 등 과제 산적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폐업지원을 신청한 농가가 전체 한우농가의 10%가 넘는 등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물 문제도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부산물의 낮은 가격이 한우가격 하락의 원인이 됨은 물론 노폐물 부산물은 한우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한우곰탕, 한우육포 등 부산물 가공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MOU를 체결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한우고기 예찬

주선태 교수(경상대 축산학과, 필명 : 필로)

암을 이겨내는 한우고기

※ 이 기고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제작한 '한우고기 예찬'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연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내용을 책자로 발간해 소비자에게 왜곡된 한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곡물 채식의 식단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위암에 걸리는 사람이 유독 많다. 위는 음식의 소화, 소독, 저장을 담당하는데, 이곳에 암이 발생하면 영양분 섭취와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골치 아픈 암으로 꼽힌다. 그런데 한국인에게는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이지만 서양인에게는 드문 암으로 통한다.

육류섭취량 높은 나라, 위암 발병률 낮아

육류섭취량이 높은 나라일수록 위암의 발병률은 낮아진다. 암 전문가들은 육류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곡채식으로 위암의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한우고기의 섭취를 늘리면 위암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무래도 한우고기와 같이 맛있고 양질의 단백질이 많은 고기가 들어간 식단을 꾸리면 굳이 짜고 맵고 자극적으로 먹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많은 의사들이 암 환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먹을 것을 주문한다. 만약 암 환자가 한우고기와 같이 영양분이 우수한 식품을 먹지 않아 충분한 동물성단백질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먹어 온 식생활에 뭔가 잘못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채식이 건강식이자 웰빙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고기, 특히 한우고기와 같은 적색육을 암 치료의 훼방꾼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나 채식만으로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없다. 특히 한우고기와 같은 적색육은 암 치료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이다. 한우고기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아미노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대체할 정상 세포를 만드는 최상의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고기는 철분이 풍부해 암 환자가 흔히 겪는 빈혈 예방에도 무척 유용하다.

한우고기, 암환자들 위한 고농축 영양식

한우고기로 만든 음식은 영양가도 높지만 무엇보다 맛있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암환자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암병동에는 “암은 환자를 굶겨서 죽인다”는 말이 있다. 대부분의 암 환자가 치료 도중 식욕부진이나 식욕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

실제 필로도 암에 걸린 지인들의 대부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영양결핍으로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되는 것을 보아왔다. 만약 암 환자가 평소 체중보다 5% 이상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암제와 방사선치료 부작용의 위험도 배로 높아진다. 따라서 암 환자는 평소보다 더욱 좋은 영양을 공급받아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상적인 체중이 유지되는 한 평소의 체력도 유지되고, 그러면 암과의 싸움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고기와 같은 고농축 영양식품의 섭취로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다.

암 환자들은 한우고기로 만든 음식이나 반찬을 하루 한 끼나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암 전문가들이 암 환자에게 권장하는 1일 육류섭취권장량은 쇠고기 기준으로 200~300g 정도다. 물론 한우고기의 경우, 지방함량이 많은 꽃등심 같은 부위보다는 지방함량이 거의 없고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우둔이나 설도 같은 부위의 살코기가 좋다. 만약 죽을 먹어야 할 형편이라면 쌀로만 끓인 흰죽보다는 한우고기를 다져 넣으면 영양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맛도 좋아져 많이 먹을 수 있다.

1년에 겨우 10kg 먹는 한국인...권장량 이하

미국식 영양학을 인용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증가하는 이유를 서구식으로 변한 식생활에 빗대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육류섭취량이 높은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장암에 잘 걸리는 반면, 육류섭취량이 적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는 대장암이 희귀한 질병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이 증가하는 것은 서구식으로 변한 식사, 특히 육류섭취량 증가가 원인이라는 소리다. 특히 그들은 쇠고기 같은 적색육과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육가공식품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적색육과 육가공식품을 대장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서구의 과학자들이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는 적색육의 섭취량이다. 그들은 조리한 적색육의 섭취를 주당 500g, 정육 기준으로는 주당 700g 이하로 줄이라고 권장한다. 주당 500g이면 한 달에 2kg이고, 1년이면 24kg이다. 정육 기준으로는 1년에 33.6kg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1년에 4kg의 한우고기를 먹는다. 수입쇠고기 6kg을 합쳐도 겨우 10kg을 먹는 것이다. 재미있지 않는가?

한우고기는 암을 예방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

더구나 현재 적색육이 대장암 발병위험을 높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한 가설만 제시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없다. 단지 적색육 자체가 대장암 발병에 직접 기여한다기보다 튀기거나 직접 불에 굽거나 훈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발암물질이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추정뿐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쇠고기를 고열로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탄 부위는 떼어내고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것이 전부다.

필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색육인 한우고기가 대장암 증가의 원인이라고 믿지 않는다. 아니,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죄다. 앞뒤를 다 따져보아도 한우고기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각종 암을 예방하는 양질의 단백질 식품이다. 그리고 암 환자들에게는 암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최고의 영양식품이다. 그러니 미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우고기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한우고기는 억울하다. ☺

관측기능 강화·적정 사육마릿수 관리매뉴얼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생산자단체, 학계, 유통업체 등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 '한우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사료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국내산 조사료 활용저조, 낮은 번식률과 가축질병 등으로 생산능가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장개방과 복잡한 유통단계까지 더해져 한우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에서 발표 예정인 한우산업발전대책의 주요 내용과 관계 전문가들의 주문을 짚어본다.

개량 통한 차별화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농식품부는 개량사업의 세대간격을 줄이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며 육질과 더불어 육량에 대한 보증씨수소 선발지수를 강화하는 한편 혈통등록 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단위 개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한우사업단, 브랜드경영체 등과 연계해 지역별 차별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량측면에서는 친자부정, 혈통미등록 우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산비 절감위한 사료 개선

생산비 절감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대상품목에 왕겨, 쌀겨 등을 추가하고 부산물 유통센터를 운영, 자가 TMR 등의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합사료 급여량 절감을 유도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는 한편 품질향상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인필 경기한우조합장은 "최근 5년 사이에 조사료 관련 예산은 5~6배, 경영체는 4.5배 증가한 반면 생산량은 1.5배 늘어난데 그쳤다"며 "무작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 수입 조사료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8일 한우산업 발전방안 전문가회의가 열렸다.

단계축소 통한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는 협동조합형 패커 및 대형 민간패커를 육성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제품 개발, 위생강화 등으로 부산물 등에 대한 소비도 확대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한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조흥연 금천대표는 "지자체 등과 연계해 민간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부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제품개발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노폐우 부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한우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육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협동조합형·대형 민간패커 육성...다양한 소비채널 확보

개량사업 세대간격 줄여 수입육과 차별화 추진

축협 생축장이 우량 송아지 생산, 위탁 등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농가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급 대책 및 수출 지원

아울러 장기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관측기능을 강화하고, 적정 사육마릿수를 설정하는 동시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상황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의회'를 운영해 수급조절을 위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할 방침으로 공급과잉 시 암소도태장려금, 군납, 가축보험 등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공급부족 시 다산장려금, 출하장려금 지급 등 생산장려책을 추진코자 한다.

아울러 6차산업화, 농가교육 확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및 지원, 농가소득 안정 대책 마련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

2014 축산분야 예산 및 추진 방향

내년 축산예산 1조5,047억원 책정

7,527억원 들어 농가 사료구입 부담 완화

한우산업발전대책이 수립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뒷받침할 내년도 축산부문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총 1조5,047억원으로 책정했다.

축산부문의 경우 국제 곡물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농가의 사료 구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료산업융합지원금을 900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총 7,527억원을 집행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나 방역 강화 등 경쟁력 강화예산으로 조사료생산기반

구축 1,577억원, 말산업육성지원 201억원, 구제역백신센터 63억원, 가축방역 11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310억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969억원,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45억원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 1,324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세웠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보전직불금도 올해 600억원에서 1,005억원으로 늘리고 폐업지원금도 300억원에서 62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산지를 활용한 초지조성과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 체험관광 등을 접목한 산지 축산 시범농장 및 지역단위 친환경축산단지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제16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수상 샘터농장을 가다

송아지때부터 기본원칙 철저히 지켜 체계적 사양관리

출하 7~8개월전 사료급여량 조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한우를 사육해왔습니다. 전국의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힌 지식들을 바탕으로 개량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10월 28~30일 농협 음성공판장에서 열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난달 7일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시상식을 가진 샘터농장 남정국 대표(55)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밝혔다.

열정과 노력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거둔 남 대표로부터 그만의 사양노하우를 엿들어봤다.

자신감 이 최대 비결

130농가, 260마리가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남 대표가 출품한 수상축 2마리는 각각 등지방 6mm, 13mm, 배단면적 126cm², 137cm², 도체중 440kg, 464kg, 근내지방도 93점, 93점으로 모두 최중등급 1++ A를 기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2007년 강원도 내 30마리 이상 출하농가 가운데 1++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농가로 선정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1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소값 하락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이 수상경험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나머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남 대표는 그의 열정과 노력을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표현했다.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

의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배운 지식들을 철저하게 그만의 사양관리에 녹아들었다.

암소 개량통한 우수 형질 관리

“암소 개량이 우선입니다. 수소 정액은 선발된 것이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암소 개량에 중점을 뒀죠. 1+등급 이상만 사육하고, 그 이하는 도태를 서두릅니다. 세대 순환을 빨리 가져가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관리해줘야 우수한 형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수소 개량은 정부와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중축개량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암소 개체 관리를 통한 우수 형질 유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 대표는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호흡기 질병이나 설사를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주입하고, 태어난 송아지에게 유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티모시 건초를 급여했습니다. 부족한 유량도 보충하고 위를 튼튼하게 해 후기 사료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시기별 사료관리 프로그램

남 대표는 이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그만의 노하우로 시기별 사료와 초음파진단을 통한 비육관리



를 뽑았다.

“거세는 6개월째에 실시하고 있으며 육성 전기와 후기에는 지역의 TMF사료 등을 제한급여 했습니다. 출하 7~8개월 전인 22~23개월부터는 마블링 배합사료와 벧짚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등지방 두께를 일정하게 해주는 동시에 지방색과 맛을 유지시켜 주는 비결입니다. 육질확인은 초음파진단에 의지합니다. 초음파진단으로 간단하게 육질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화된 사양관리가 육량등급은 물론 지방색과 고기맛을 우수한 동시에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㉞



축산 강대국과 시장개방 ‘막대한 피해’ 우려 호주산 쇠고기 2030년 관세 철폐 전망...대책마련 시급

TPP 참여 농축산업 영향 고려 신중해야

지난 5일 우리나라와 호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정부가 선언했다. 국내 쇠고기시장의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는 현재 40%의 관세를 치르고 있지만 이번 FTA를 통해 2~3%씩 관세를 낮춰 15년 뒤에는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으로 한우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는 거대 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축산업계의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FTA와 TPP의 의미와 더불어 한국 축산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5년뒤 쇠고기 무관세 수입

지난 5일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르면 2015년에 발효가 되어 호주산 쇠고기는 2030년 완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와의 FTA협상은 2009년 5월부터 시작해 4년 7개월만에 타결됐으며 지난 3일 WTO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제 7차 FTA공식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공식협상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발표하며 이 중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40%의 관세가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져 오는 2030년에는 관세를 완전 철폐할 전망이다.

◆ 쇠고기 양허협상 결과 비교

품 목		한·호주 FTA	한·미 FTA	한·EU FTA
쇠고기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
	식용설육(18%)	15년		15년

무방비 한우산업 피해대책 시급

FTA가 타결되지 않는 지난해 호주와의 무역을 보면 29억9,300만 달러의 총 교역액 중 수입액은 28억8,800만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1억600만달러에 그쳤다. 더욱이 농축수산물분야에서만 27억8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같이 관세 적용 시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우산업의 피해는 실로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은 호주산이 56.9%로 미국(38.9%)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이에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한우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호주 FTA 체결로 인해 40%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우산업의 연간 피해액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5% 관세를 철폐하고자 40%에 달하는 쇠고기 관세를 내준 것은 한우산업을 버린 꼴로써, 현 정부를 규탄하며,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한편 쇠고기 검역문제로 2008년 3월 이후 중단된 캐나다와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공식협



상을 진행하여 조만간 한·캐나다 FTA가 타결될 것으로 보이며, 뉴질랜드와는 내년 초 5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FTA를 넘어 더 큰 시장개방인 TPP 가시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인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우리나라 가입이 가시화되면서 축산업계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정부의 요식행위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TPP 공청회가 농축산단체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한국 축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다.

TPP에 가입된 대다수의 국가들은 농업강대국일 뿐 아니라 전품목 관세철폐를 원칙으로 예외품목을 사전에 금지하고 있어 협정 체결시 국내 축산업을 송두리째 고사시킬 것이란 점이다.

실제 현재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만해도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내 입지 강화에 관심이 높은 미국을 위시해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미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고 올 7월부터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당초 쌀, 밀,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철폐 원칙에서 예외적 취급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모든 품목에 대해 예외없이 협상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협상 참여를 승인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도 그동안 모든 협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쌀과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가입 서둘러 농축산단체 격앙

이처럼 TPP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농축산단체들도 격양된 분위기가 팽배해 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중FTA(자유무역협정) 8차 협상장 인근에서 열린 농축산인결의대회에서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인 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TPP는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농업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통상 전문가들은 굳이 TPP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TPP 참여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실익이 없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농축산인들의 강한 반발속에 강행된 TPP 공청회에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TPP 참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거대담론에 휩쓸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된다”며 “지금 참여하면 초기 비용을 엄청나게 치러야 하며 얻을 것도 없고 나중에 참여한다고 해도 잃을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TPP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개방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으며, 또 그동안의 협상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가늠하기 힘든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㉔

2014년도 한우자조금, 조속한 한우가격 회복 주력 폐업농가 속출로 인해 한우자조금 273억원 조성 예상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201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28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해 2014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4년 한우자조금 총 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약 81억원 감소한 273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육마릿수 감소에 따라 농가 거출금이 157억원(예상도축마릿수 82만마리), 정부지원금이 60억 5,900만원으로 35억여원 줄어든데다 이월금이 46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홍보부문 예산이 올해 79억1,987억원에서 2014년 65억6,200만원으로, 수급안정사업이 131억5,370만원에서 96억9,350만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유통구조개선과 교육정보사업은 각각 2억 3,928만원, 1억8,600만원으로 소폭 늘어 집행된다.

한우자조금은 가격하락 지속 및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에 대응하고자 조속한 한우가격 회복을 목표로 주력할 예정으로써, 의결된 2014년도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다. ☺

2014년도 신규사업 안내

- 1 **한우고기 학교급식 우수학교 선정** : 학교 자체적으로 한우고기 소비를 유도하고자 신설하는 이 사업은 전국의 초, 중, 고교 중 16개교를 선정해 한우고기 인증 현판 및 상장을 수여하고, 이들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된 3개교(초·중·고 각 1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급식 담당자의 해외 연수를 지원한다.
- 2 **한우알뜰판매장 개설** : 한우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 연동을 통한 합리적인 한우가격을 형성하고자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에 정육점형 식당 형태로 1개소를 개설한다. 향후 결과에 따라 매년 1개소씩 신설 예정이다.
- 3 **한우사랑 판매점 선정사업** : 한우 판매점의 위생 확보 및 한우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년 2회씩 한우사랑 판매점을 선정한다.
- 4 **생산자 단체 및 유관기관 워크숍** : 한우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군지부 사무국장 등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다.

- 5 **전국한우지도자대회** : 전국 한우지도자를 대상으로 한우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한우자조금의 당위성 홍보 및 한우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 및 토론을 할 예정이다.
- 6 **한우농가 교육영상제작** : 시설, 사양 등 축산현장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미지 중심의 멀티미디어 교육교재를 제작해 보급한다.
- 7 **한우야 놀자! 프로젝트** : 어린이 및 30~40대 가족을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재미있는 시청각자료 및 놀이와 교육이 가미된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8 **사료성분 분석조사** : 지역별/회사별 배합사료를 채취하여, 사료검정 인증기관을 통한 성분분석을 실시 후 사료성분 미달로 인한 농가피해를 방지한다.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에 주력

한우자조금·한우협회, 신원에프아이와 부산물소비촉진 업무협약



원에프아이가 부산물 소비 촉진, 부산물 가공제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신원에프아이가 한우사골과 뼈를 이용해 만든 ‘한

적체되고 있는 품질 좋은 한우부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생산자 단체가 팔을 걷었다. 지난달 19일 한우협회 회의실에서 ‘한우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신

우사골곰탕’ 제품과 관련해 향후 해당 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신원에프아이는 부산물 및 웰빙부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제품 등을 생산할 방침이다. ☺

한우로 지키는 건강...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우홍보·할인판매 등 다양한 기념행사 진행



11. 9 으뜸농산물한마당



11. 11 농업인의날 기념 우리축산물 홍보전



11. 13~14 우리 안전농산물 직거래장터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는 지난달 한우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에는 한농연 주최로 경기 분당 하나로 클럽에서 열린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에 참여해 한우불고기, 육포 시식회 및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해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지난달 11일에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서울 광장에서 진행한 우리축산물 홍보전에 참여해 한우

곰탕을 할인해 판매하며, 불고기 시식회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리 안전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한우자조금은 한우할인판매를 진행해 저렴한 가격의 한우로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었다. ☺

제1회 한우패티요리대회 성황리 개최

비인기 부위 소비촉진 · 새로운 판로개척 기대

뿌리채소 가득 카레향 건강패티 · 한우 쌀과자 튀김 '대상'



심사위원이었던 그랜드 하얏트 호텔 이주동 셰프는 “창의적이고 맛있는 요리들이 많아 심사하기 힘들었다”며 “점수차가 크지 않았으며 본선에 올라 온 여러분의 열정만으로도 이미 상을 수상한 것”이라고 심사

한우자조금은 국내 한우의 비인기 부위 소비촉진과 한우패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을 위해 지난달 29일 한국호텔관광교육재단에서 ‘제1회 한우패티요리대회’를 진행했다.

대학생들과 주부, 전문요리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20팀이 열린 요리 경연을 펼친 결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모두 10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상인 대상에는 뿌리채소인 연근과 우엉을 이용한 ‘뿌리채소 가득 카레향 건강패티와 한우 쌀과자 튀김’을 만든 기보경 씨(30)가 대상을 수상했다.

평을 남겼다.

한우자조금 강성기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한우패티요리대회를 통해 다양한 한우요리의 개발과 함께 한우판매 및 유통의 새로운 활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패티요리대회’는 비교적 저렴한 한우의 비인기부위인 목심, 앞다리살, 설도, 우둔 등을 통해 건강한 패티를 만듦으로서 한우고기의 새로운 소비방안 개척과 가정에서도 한우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개최하게 됐다. ☺

당신이 모르는 韓牛 이야기

한우자조금, MBC 다큐프라임 제작지원



최근 채식 열풍과 더불어 마블링의 지방성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우와 한우 마블링에 대해 알아보고 수입 소고기와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차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한우자조금은 지난 14일 MBC 다큐프라임 ‘당신이 모르는 韓牛 이야기’의 제작을 지원했다. 등급에 따라 맛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한우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의 효능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한우의 풍미에 푹 빠진 영국인 셰프를 만나 한우예찬을 들어보고, 한우 달인 3인방이 한우 부위에 따라 최상의 맛을 내는 구이 비결을 소개했다.

미국 쇠고기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자

〈 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서영석 과장 〉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미국 쇠고기산업을 견학하기 위한 '한우농가 해외연수'를 지난 11월 4일부터 10일(1차), 11월 18일부터 24일(2차)까지 총 2회로 60명을 선발해 캘리포니아 일대의 소 산업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해외연수 후기를 소개한다.



76만업체(농가) 육우·송아지 포함 9,400만마리 사육

연간 3,400만마리 도축...대부분 자국내 소비

미국 쇠고기 산업 현황

미국 쇠고기 산업은 현재 76만 업체(농가)가 육우와 송아지를 포함해 9,400만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연간 3,400만마리를 도축해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쇠고기는 대부분 자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생산된 쇠고기의 10% 정도만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연간 28kg의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소비의 약 절반이 햄버거의 형태로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국내산 4kg, 수입산 6kg로 총 10kg밖에 되지 않아 미국에 비해 절반도 안되게 소비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UC.Davis 대학과 지역 농가와의 산학협업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었는데, 대학에서 개발된 최신 축산기술을 농가에 바로 접목시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두 곳의 업체(농가)를 방문했는데 모두 이 대학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지역내 축산대학과 지역 한우브랜드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생산과 판매 시행

광활한 초지에서 생산되는 건초, 풍부한 부산물(아몬드껍질, 석류박, 코코넛껍질 등), 곡물 등으로 대형, 집약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 생산적인 측면에서 한우가 경쟁력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대형화 된 생산방식은 고품질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맞추기 어렵고, 제품의 차별화 없이 동일한 '쇠고기' 상품을 생산해 평균 품질에 따라 평균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쇠고기 시장은 기존의 판매방식(대량생산, 평균품질, 평균가격)에서 가치기준 판매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치기준 판매방식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생산에 목표를 두고 특정한 시장에 맞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 및 차등화된 가격으로 매매되는 판매방식이다. 다시 말해 미산쇠고기도 특정 수요층에 목표를 두고 쇠고기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산쇠고기의 90%는 냉동저급육으로 들어오지만 값싼 고급냉장육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한우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산 고급냉장육과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생산비절감, 고급육, 맛 등급 등)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㉞



12월 한우 수급동향과 전망

12월~내년 2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1만4,000원~1만5,0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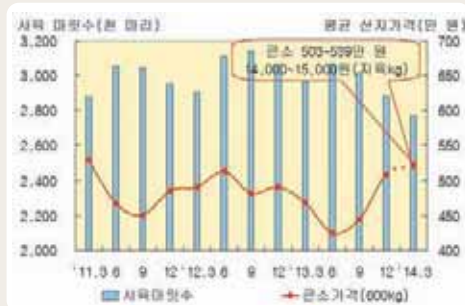


사육동향

▷ 송아지 생산 감소, 내년 3월까지 사육마릿수 전년보다 감소 전망

- * 도축증가와 송아지 생산감소로 9월 기준 한우 사육마릿수는 293만1,000마리로 전년대비 2.9% 감소
- * 가임암소 감소로 인해 1~10월 한우 정액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166만4,000스트로우)보다 7.1% 감소한 154만7,000스트로우였으나 10월 정액 판매량은 15만8,000스트로우로써 전년 동월 9만8,000스트로우보다 증가, 번식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송아지 입식의향 조사 결과, 송아지 입식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겠다는 농가의 비율이 전분기(9.1%)보다 낮은 4.5%를 기록했다. 최근 송아지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도매가격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한우농가가 입식의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한·육우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 한우 가격 전망

한 우		12월~내년 2월	
		2013년	2014년
큰 소 (1등급)	산지 (600kg)	467만원	503~539만원
	도매 (지육kg)	13,037원	14,000 ~15,000원
수송아지(6~7개월)		162만원	200~220만원

주 : 큰 소 산지가격은 1등급 경락가격(원/지육kg)에 자육율(59.9%)을 고려하여 생체 600kg으로 환산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도축 및 수입동향

▷ 국내 생산 감소가 커 12월~내년 2월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예상

- * 거세우 출하 대기물량이 여전히 많지만, 암소도축 감소폭이 더 커 12월~내년 2월 도축은 전년 27만마리보다 7.6% 감소한 24만8,000마리 전망
- * 설 명절 대비 위해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6만9,000톤보다 1.7% 증가한 7만톤 예상
- 추석 전까지 국내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중국의 쇠고기 수요 증가로 1~10월 쇠고기 수입량은 '12년보다 0.6% 증가(9,600톤), 현재 냉동갈비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구이용 수입 육 재고도 부족한 상황으로 설 수요 증가로 12월~내년 2월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6만9,000톤)대비 1.7% 증가한 7만톤 예상



가격전망

도축마릿수 감소와 수산물 대체수요 증가로 12월~내년 2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1만3,037원)보다 7~15% 상승한 1만4,000~1만5,000원(503~539만원)으로 전망

- * 1등급 도매가격은 설(1월 31일)전에는 전망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으며, 2월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송아지 부족으로 12월~내년 2월 수송아지 가격은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 11월 육질 등급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득분석 결과, 2등급 이하는 여전히 부(負)의 소득으로 추정

송아지 생산 감소로 12월~내년 2월 수송아지 가격 작년보다 높을 듯



가격동향

▷ (암송아지) 마리당 120만원 수준에서 상승 추세

* ('13.9월) 1,170천원 → (10월) 1,197천원 → (11.29) 1,303천원

▷ (수송아지) 마리당 180~190만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 ('13.9월) 2,061천원 → (10월) 1,988천원 → (11.29) 2,014천원



큰 소값 동향

▷ (도축마릿수) 일 도축물량 4,000마리 수준으로 전년 동월대비 7.4% 증가

* ('12.11.1~29일) 78,365마리 → ('13.11.1~29일) 84,189마리 (7.4% ↑)

▷ (도매시장 경락가격) 할인행사와 수산물 대체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 상승 추세

* ('13.10월) 13,931원 → ('13.11.29일) 13,645원

◆ 한우농가 소득 추정 (11월 한우평균 도매가격 기준)

(단위 : 천원)

등급	도매가격(원/kg)	가격(A)(600kg)	경영비(B)(600kg)	소득(A-B)
1++	16,708	5,985	4,630	1,355
1+	14,999	5,373		743
1	13,934	4,991		361
2	11,945	4,279		△351
3	10,180	3,646		△984

◆ 한우 가격 및 출하동향(9월 기준) - 국내 소 도축 / 출하 현황 및 쇠고기 가격

(단위 : 원/kg)

구 분		평년 (’08~12)	2012년		2013년		대비		
			10월 (A)	11월 (B)	10월 (C)	11월 (D)	C/A	D/B	
도축마릿수(마리) (일평균도축마릿수)		654,734 (2,480)	59,921 (2,853)	72,346 (3,288)	80,651 (3,841)	75,180 (3,580)	34.6 (34.6)	3.9 (8.9)	
경매마릿수(마리) (일평균경매마릿수)		246,000 (932)	30,314 (1,444)	35,584 (1,617)	40,066 (1,908)	38,379 (1,828)	32.2 (32.1)	7.9 (13.0)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농가수취가격)	평균	14,167 (5,076)	12,567 (4,501)	12,612 (4,518)	13,931 (4,990)	13,666 (4,895)	10.9	8.4	
	거세우	15,256 (5,483)	14,364 (5,162)	14,162 (5,090)	14,823 (5,327)	14,372 (5,165)	3.2	1.5	
	비거세우	10,913 (3,870)	10,281 (3,646)	10,845 (3,846)	10,953 (3,884)	11,866 (4,208)	6.5	9.4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마리)	암소	4,442	3,330	3,496	3,844	4,148	15.4	18.6	
	송아지	암	1,983	951	869	1,199	1,262	26.1	45.2
		수	2,124	1,643	1,587	1,993	1,983	21.3	25.0
한우 불고기(1등급/kg)		33,287	32,960	32,290	30,300	30,510	△8.1	△5.5	
한우 등심(1등급/kg)		64,477	63,740	62,820	61,000	60,710	△4.3	△3.4	

개성있는 건배사로 연말모임 분위기 주도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싫든 각종 모임이 많이 생긴다. 모임에 가면 대개의 경우 참석자가 많은 적든 건배(乾杯)를 하고 건배사들이 오고 간다. 자칫 밋밋하거나 산만한 분위기를 집중시키고 참석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특히 건배사에 따라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엉망이 될 수 있어 모임이 잦은 사람에게 건배사도 사실 고민거리다.

[출처 : 경남일보 · Breaknews 발취]



간단하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건배사

직원 회식, 송별모임 등 모임 성격의 고려는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오늘을 축원하고 내일의 소망과 꿈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또한 유머와 감동, 즐거움, 메시지를 동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들과 같아서도 안 되고 분위기도 맞춰야 한다.

재미있는 건배사 하나가 평생 기억되는 모임으로 만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말재주나 임기응변이 모자란 이들에겐 건배사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건배사는 시대상과 유행을 반영

여의도 증권가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는 '상한가(상심 말고 한탄 말고 가슴 펴자)'라는 건배사가 자주 등장하고, 군사정권 시절에 '건배' 또는 '위하예'와 같은 딱딱한 게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엔 자유로운 표현법이 선보였다. 또 젊은 직장인들은 '소녀시대(소중한 여러분들 시방 (잔)대보자 또는 소중한 여러분, 시대의 대세는 소통입니다)' 등 인기 걸그룹의 이름을 딴 건배사를 애용한다고 한다.

특히 경제적 풍요나 솔로 탈출 · 취업 등의 희망과 행운을 기원하는 내용도 많다. '파란만장(파란색 1만 장이면 1억원이 된다)'은 새해에는 1억원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 변사또(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만나자), '오바마(오직 바라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길)', '스마일(스쳐도 웃고 마주쳐



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해당화(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등의 건배사들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만의 건배사로 분위기 주도

올 한 해를 한 달 남겨두고 각종 단체나 모임에서 벌써부터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건배사를 고민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본다. 이제는 건배사를

모은 책도 나오고 유행하는 건배사도 많아 예전보다 큰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만의 독특한 건배사로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관심을 끌고자 하는 사람도 여전히 적지 않다. 모임에서 자신을 각인시키는데 멋진 건배사만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어떤 건배사가 등장하고 유행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끈다. ☺

꿀볼건 1위

‘술값 계산할때 사라지는 사람’

송년회 꿀볼건 1위는 ‘술값 계산할 때 사라지거나 탄짓 하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연말 송년회자리에서 가장 꿀볼건인 사람’으로는 27.7%(322명)가 ‘술값 계산할 때 사라지거나 탄짓 하는 사람’을 꼽았다. ‘술을 계속 강요하는 사람’은 26.6%(309명)로 뒤를 이었으며, ‘혼자 취해 주정하는 사람’도 25.9%(301명)를 차지했다.

‘술기운을 빌려 쌓였던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11.7%(136명), ‘술 받아서 몰래 버리는 사람’ 5.9%(69명), ‘술은 안마시고 안주발만 세우는 사람’ 2.2%(25명) 순이었다.

‘연말 보내고 싶은 송년회 유형’은 절반이 넘는 60.4%(702명)가 ‘영화/공연관람 등 문화형 송년회’라고 응답했다. ‘술마시기 등 음주가무형 송년회’는 15.9%(185명), ‘볼링, 탁구 등 놀이형 송년회’ 13.9%(162명), ‘봉사활동 등 참여형 송년회’ 9.8%(113명) 순이었다.

한우관련 건배사

고소영 : 고기야!
소야!
영원히 사랑한다

손흥민 : 손해는 이제 됐다
흥겨워 보자!
민족산업 한우를 위하여

1박2일 : 1(일)일히 정성들여 키운 한우
박한 값에 울상짓지 말고!
2(이)겨보자!
일본 와규보다 더 좋은 맛으로!

무한도전 : 무척 힘들었다
한우 키우느라~
도전과 열정으로
전보다 나아지자!

한우고기 : 한없이 사랑합시다
우리모두
고생하신 모두들~
가을입시다 술잔을!

한우고기 : 한잔두잔 술마시다
우리서로 못알아보지 말고
고만 적당히 마시고 다음을
기약합시다 (끝날 때)

조사료 :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료(요)잔이 마지막입니다(끝날 때)

송년회 천태만상

한우관련 건배사



전국 지자체 ‘홀몸노인 돌보미사업’ 호응 화재·응급사고 위험서 ‘24시간 보호’

[출처 : 경인일보 발췌]

급속한 고령화·핵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집 안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화재로 홀로 살던 노인이 숨지는 사고 발생 ‘소식이나’ 홀몸노인 사망한지 몇 개월만에 이웃주민으로부터 시신발견’ 등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인구도 증가하다보니 홀몸노인을 위한 안전대책이 국가적으로도 중요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1년부터 홀몸노인 안전보호 서비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지난 2011년부터 홀몸노인에 대한 안전적 보호와 응급상황, 고독사 등 불의의 사고에 조기 대응하기 위한 ‘홀몸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실시해오고 있다.

수원시는 홀로 사는 65세이상 노인 1,756명 집에 온라인 IT기술과 연계된 유선과 무선의 긴급 호출기능 통신시설을 설치해 재난과 질병으로부

터 안전을 지키는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홀몸어르신 집에는 번호키 없이 파란색과 빨간색 2개의 버튼만 있는 응급호출 전화기 ‘게이트웨이’와 가스유출감지센서, 화재감지센서,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활동량감지센서, 그리고 외출을 알리는 무선외출 버튼 등 5개 장비가 설치됐다. 이들을 보호하는 노인복지관과 연결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다.

지난 3월말 현재 수원시 65세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113만315명의 7.58%인 8만5,736명으로, 홀몸어르신(독거노인)은 1만8,944명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제 주거여부와 주거상황,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관계, 서비스 이용 등 생활실태를 전수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홀몸어르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인복지서비스의 누락, 중복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㉞



경북·전남 한우할인판매 성료

20~40% 저렴한 가격에 판매...다채로운 행사도



11.7~10 경북 도농상생 소비촉진행사



11.22~23 전남 명품 한우대축제

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했다. 또한 전국 청소년 페스티벌 및 즉석경매, 한우국밥 나눔 등 다양한 행사로 한우고기를 애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무안 남악 중앙공원에서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전남 명품한우 대축제'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도지회는 힘을 모아 지역 별로 할인판매를 진행했다.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2013 도농상생 한우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해 시중가 대비 20~40% 정

행사를 실시했다. 한우고기 및 부산물을 23~50% 할인판매하며, 한우고기 및 떡국 무료 시식회, 독거노인 중식 제공 등 다채로운 기획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쳤다. ☺



애독자코너

연말연시 각종 모임의 성격에 따라 위트넘치는 건배사는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물론 좌중을 휘어잡는 달변가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우농가에게 어울리는 건배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우농가에게 추천하거나 재미있는 건배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우편접수도 가능하오니 아래 접수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전화번호를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게재하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송아지 설사 예방약을 드립니다.

우편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19 제 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소식지 담당자 앞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www.ihanwoo.org

11월호 정답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유아름(울산 울주군), 김은영(강원 영월군), 석현수(충북 청주시),
가양현(충남 태안군), 박시덕(강원 홍천군), 전기영(전북 군산시)

한우가격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촉진 활동 강화를 통해
한우가격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형유통업체, 농협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전개
-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가격 부담 해소
- 소비자와 생산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우 가격 제공



한우에 대한 인지도 증대를 통해
한우소비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 한우의 우수한 기능성, 안전성, 신뢰성 홍보
- 장기적인 소비확대를 위하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홍보 및 급식 확대
- 기업체 연계 소비촉진 및 판매 확대



한우산업 기반 구축과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및 R&D사업 강화